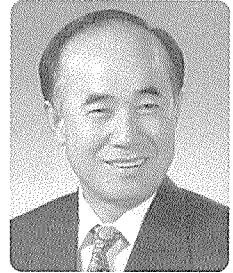


석유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글 · 박은태 |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겸임교수, 前 대한석유협회 회장



석유산업 36년(1966-2002)

우리나라의 원유도입은 해방이후 상당기간에 걸쳐 외국의 경제원조에 의존한 바가 크다. 1966년에 1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의 시작과 더불어 현 SK(주) 전신인 대한석유공사의 설립과 함께 우리의 석유산업이 생성하게 되었다. 1966년에 우리나라가 원조경제를 벗어나고 외자도입이 주로 차관형식으로 전환될 시점에, 유상석유수입이 이루어 졌고, 대한석유공사가 본격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의 석유산업은 힘찬 출발을 하였다. 개발초기 우리경제는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근대적인 상황이라 1인당 GNP는 100 달러 미만이었고, 민간 석유소비는 미약하여 1966년 원유수입액은 2980만 달러로써 전체 수입액 7억 1644만 달러의 4.2%에 불과했다.

그러나 36년이 지난 2002년의 원유수입액은 약 600배 증가한 191억1730만 달러에 달하여 전체수입액 1511억 달러의 12.6%를 점유, 석유비중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어 타산업보다도 현저히 증가했

다. 이는 우리나라 간판산업으로서 조선, 철강, 자동차등 에너지소비의 장치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경제발전으로 내구소비재의 민간소비가 현저히 증가한 때문이다. 연간 1억2300만톤인 약 8억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대 원유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양적 성장에 비추어 원유수급의 불안전, 유통질서의 난맥상, 과도한 조세 부담 등의 제약요인으로 석유산업기반은 취약하다.

향후 20년인 2023년에는 매크로 차원에서의 경제성장, 산업 및 민간소비 등을 고려하면 원유수입액은 현재보다 약 2.5배 증가하는 약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023년의 석유산업을 전망해 볼 때, 이러한 취약한 기반을 가지고 과연 낙관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에너지산업의 기반강화

석유산업 초기 국내 정유사의 원유처리량은

1966년에 4만BPSD에서 1997년까지 243만 8천 BPSD로 약 61배 증가하였으나 그 후 개방화로 정유회사는 담보상태에 있고, 석유제품 수입상이 41개로 확대되어 국내 시장의 10%를 장악하는 등 국내 정유업계는 시련기를 맞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정유사가 국가의 보호산업의 울타리에서 안주하다가 개방의 되서리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석유산업이 여타산업과 같이 기술과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성장하여 정부의 육성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앞으로도 고품질석유를 생산하기 위한 환경설비투자과 해외 원유개발자급도를 높이는 상류부문(Upstream: 석유의 탐사 및 시추)에 진출하기 위해 일정부문의 기반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석유정제산업의 시설비는 천문학적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투자자금의 회임기간이 길어 기업의 채산성과 재무구조의 건전화 기반이 형성되기 전에 IMF 금융위기를 맞게 되었다. 에너지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국민생활과 산업전반의 동력으로 국가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산업과 달리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외환위기이후 소비의 침체와 외국의 석유원제품 덤핑물량의 범람등 경영이 악화되어 1999년부터 국내 정유사는 해외에 지분과 경영권이 매각되기 시작했고, 인천정유는 부도로 관리기업에 편입되었다. 정유업계는 2000년에 2194억원, 2001년에 2377억원의 연속적자를 내고 작년에도 영업보다 환차익에 의해 적자를 면했지만 경영체질은 허약한 상태에 있다.

설상가상으로 고율의 석유세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등 휘발유값의 70%를 부과하고, 관세와 정부부과금을 포함하여 85%가 국가의 세원으로 충당되어 석유관련세금은 우리나라 국방비 전액에 해당하는 17조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1277원으로 미국의 492원, 대만의 571원의 2배를

초과하여 소비자물가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국제원유가는 대 이라크전쟁 이후에도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 가격이 배럴당 27달러에 달하고 있어 국내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3년 7월중 가공단계별 물가동향에 따르면 원유가격이 배럴당 1.2달러 오르면서 원재료 가격이 전월대비 1.5% 상승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원재료가격상승은 다시 1~2개월 후 소비자물가를 인상시키는 연쇄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중에 석유유사제품인 세눙스가 출현하여 염가로 시중에 유통되는 등 업계는 본연의 경영보다 불합리적인 경제환경과 싸워야 하는 현실이다. 에너지산업의 현재의 취약한 입지를 살펴보면서 향후 20년을 내다본다면 산업기반의 강화와 효율화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하겠다. 즉 석유산업의 현안문제인 관세를 비롯한 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여 개선하고, 유통질서를 구축하며, 원유수입다변화, 해외개발자급도 10% 달성 등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석유산업발전 5대과제

1. 세계개편

미국의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사이먼 쿠츠네츠는 인구 1500만명 이상은 대민족국가로서 국민의 의식주에 관련한 생필품은 자국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가 몇 백만 밖에 안 되는 도시형국가는 비교우위산업을 개발하여 생존할 수 있지만 수 천만명이 넘는 인구대국은 기초생활의 재화를 자국에서 확보해야만 경제안전이 보장된다고 했다. 선진국의 경우 소비지정제주의를 채택하여 자국에서 소비하는 석유는 자국에서 생산함으로써 에너지의 공급안정과 고용창출을 비롯하여 기간산업의 보육을 통하여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화의 조류를 따라 석유개방은 불가피하지만 국제기준에 맞는 세제관리를 해야 한다. 일례로 원유관세의 경우 유럽, 대만, 중국 등은 무관세이고, 미국, 일본은 1%미만으로 원유와 석유제품 사이에 8~40배 관세차등을 뒀으로써 정유회사의 막대한 투자에 대한 채산성확보, 비축, 환경설비, 해외유전개발을 장려하고,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고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무세 내지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원유도입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에서는 관세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걱정하고 있지만 경제회생과 소득배가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조세정책의 주안점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의 효율증대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2. 환경설비 정부지원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해 환경기준과 배출허용 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유럽의 환경개선을 위한 4차계획(Euro-4: 2005~9년)에 의하면 자동차연료의 품질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황 함유량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즉 현행 황 함유량은 경유 350ppm(휘발유는 150ppm)인데 이를 2005년부터 50ppm으로 낮추고, 200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15ppm 이하로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현행 경유 430ppm(휘발유는 130ppm)인 황 함유량기준을 2006년 1월부터 경유는 30ppm, 휘발유는 50ppm으로 낮춘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우리의 정유업체는 1조원 이상의 설비투자를 추가해야 한다. 정유업체는 시장개방에 따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환경개선을 위한 막대한 투자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3. 유통질서 구축

지난 1997년 수입자유화이후 외국의 덤핑석유를 포함하여 석유완제품이 국내에 수입, 국내시장의 1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정유업체의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고 1999년부터 인수합병(M&A)이 가속화 되었다. S-Oil의 경영권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아람코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매각되었고,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50%는 아랍 에미리트(UAE)의 국영투자회사에 매각되어 정유사 5개사중 LG칼텍스를 포함하여 3개사가 외국인이 참여하게 되었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인한 석유소비 감소로 원유수입액은 2000년에 250억달러, 2001년에 210억달러, 2002년 190억달러로 해마다 감소되어 정유회사의 가동율은 그만큼 감소되었지만 오히려 완제품수입은 계속 증가하여 50억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휘발유 가격보다 리터당 300원 가량 싼 세눅스가 유통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는 세눅스는 품질이 자동차 연료로서 기준 미달이라고 밝혔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인하여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1년에 17조원의 세금을 내고있는 정유회사는 이러한 유통질서의 난맥상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므로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유통시장 재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4. 원유안정공급확보

우리는 원유수입의 약 77%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정세의 불안은 원유수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 이라크 전쟁이후 이라크의 하루 생산량은 약 100만배럴로 추정되고 있어 전쟁전 200만배럴의 50%에 머무는 상태이다. 이것은 전후 이라크 정세가 진정되지 않고 연이은 테러사건으로 송유관이 폭파되는 등 원유가격은 배럴당 27달러~30달러의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원유 배럴당 1달러 가격상승으로 연간

8억달러의 국제수지에 적자요인이 발생할 뿐 아니라 물가를 1.5% 상승시키고 있다. 이처럼 중동의 정세불안 영향으로 원유 가격이 불안정 한데다가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석유수요가 급속도로 증가되는 등 원유공급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원유의 공급안정성을 제고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는 원유매장량 500억 배럴로 세계 8위이며 현재 매일 800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5년 후 1000만배럴 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러시아의 원유수출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로 부상했고,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수출국이다. 미국, 일본, 중국은 러시아와 카스피해지역으로 원유수입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고 원유수송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속히 한·중·일·러의 에너지 공동개발과 공동비축 등 대책을 강구하여 에너지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5. 석유개발자금도 거양

현재 우리의 해외개발 자금도는 2%에 그치고 있으나 정부는 2010년까지 10% 수준으로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유산업의 세계적인 추세는 유전탐사와 시추개발을 하는 상류부문(Upstream)과 생산, 판매하는 하류부문(Downstream)을 수직 계열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예컨대 세계적인 석유회사 엑슨 모빌은 투자액의 60%를 상류 부문에 배분하고 40%는 하류 부문에 투자하여 에너지 종합경영을 하고 있다. 프랑스 토탈피나엘프(TotalFinaElf)사도 자금의 70%를 석유개발에 투자하여 40여곳의 해외유전을 개발, 국내 소비의 50% 이상을 자금자족하고 있다. 일본이 16%, 영국, 미국이 50% 이상의 개발자금도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2%는 에너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SK(주)는 예멘 유전개발에 투자하여 매년 400

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해외개발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 유전개발은 성공률이 1%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욕이 저조하고 정유회사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촉진해야 하는데, 현안의 수많은 경영악재로 해외투자의 마인드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기업에 해외 개발의 유인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노대통령의 리더십

지난 36년간 석유산업규모가 600배 증가(원유수입액기준)한 점에 비추어 향후 20년간 적어도 석유산업규모가 2.5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무현대통령의 리더십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즉 필자는 석유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거 관주도형의 경제운용을 통한 보호정책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참여정책에 따라 기업, 소비자, 정부 등 경제주체가 한 자리에 참석, 라운드테이블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IP제도(Indicative Plan: 유도적 정책운용)를 채택하여 최신정보의 결집과 신속한 정책대응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을 기대한다.

세계 최대의 원유수입국인 미국은 2차대전 직후 1946년에 석유산업을 국가경제의 동력이라고 규정하고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하여 당시 트루만대통령은 국가석유심의회(National Petroleum Council: NPC)를 창설하였으며, 1977년 에너지 부가 생긴 후에도 NPC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정보, 투자, 설비 등 정책제안을 정부에 제공하여 미국의 석유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우리도 석유관련 전문가를 망라하여 한국의 NPC를 창설,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 에너지산업의 효율화와 기반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